

“완주·전주 상생과제 이행계획 발표”

전북자치도, 21~25일 도정 주요 일정 공개

“김 지사, 25~31일 독일·캐나다 공무 출장”

전북특별자치도가 21일부터 25일까지 도정의 주요 일정과 현안 사업을 도민과 적극 공유하며 소통 행정에 나선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1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1~25일 상생 과제 이행계획 발표, JB금융그룹과의 투자 협약식, 김관영 지사의 해외 출장 준비, 각 실국별 브리핑 등 주요 일정이 집중된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에는 김관영 도지사가 삼례 복지센터를 찾아 새로운 주소지로의 전입신고를 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는 일정으로 이번주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상생발전 과제 105개’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 이행 방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번 발표에서는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참고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방식과 이를 법제화하는 계획이 포함될 예

정이다.

도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제도 부족으로 이행이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1일에는 JB금융그룹과의 투자 협약식도 도청에서 개최된다.

22일에는 건설정책과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제정’ 관련 브리핑을 실시한다. 지역 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대 20%까지 부여하는 용적을 인센티브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농생명축산산업국과 환경산림국에서 상반기 추진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유한다.

23일에는 미래첨단산업국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단의 정례브리핑이, 24일에는 건설교통국의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진안 산악 트레킹 코스 개발 현황 브리핑이 열린다. 구봉산 구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1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1~25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간 준공이 완료됐으며, 2026년까지 3개 구간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25일부터 31일까지 독일·캐나다 공무 출장을 떠난다. 이번 출장에서는 산업·투자 유치 및 전북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일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도청 실국장들의 주요 일 정으로는 반도체 용역 착수 보고회, RE100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 회의, 광역 농촌 공간 정책 심의회, 바이오 기관장 소통포럼, 2차전지 초광역 연계 협의체 회의, 전주 세계 소리축제 소리천사 발대식, 하계 휴가철 대비 여객선 터미널 점검, 도의회 주관 첨단전략산업 토론회 등이 예정돼 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8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 추모공간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마련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회의 의장이 추모하고 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2주기

“진실규명 제대로 이뤄지길”

도의회서 추모공간 마련
김관영 지사 등 명복 빌어
문승우 도의장 “늦었지만
특검팀이 출범되는 만큼
순직에 대한 진실 밝혀지는
과정 도민과 함께 성원”

가족과 국토를 지키는 군 장병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특히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설치한 특별검사팀의 엄정한 조사와 한치의 의혹도 없는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을 저버렸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무를 거부했다”면서 “늦었지만, 채 상병 특검법 제정에 이어 특별검사팀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안타까운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사건은 폐와 수사 방해에 연루된 책임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며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도민과 함께 성원하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건의안과 결의안 채택,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국회에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순직한 채 상병 2주기 추모 공간을 의회 청사 앞에 마련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운영했다.

문승우 의장은 18일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헌화 후 묵념하며 채 상병을 추모했다. 또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에 이어 도와 교육청 등 집행부 간부들도 채 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문승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진실 규명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 뒤, 슬픔에 잠긴 유

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도, 간부공무원 대상 특강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위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도는 지난 18일 오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도정을 실현하고, 특히 올해 말 예정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을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을 맡고 있는 민성심 국장이 초청됐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에서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심사보호국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간부들이 청렴 실천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북자치도, 홍보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제7홀에서 열리는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에 참가해 고향사랑기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홍보관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적 취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전북을 대표하는 담배품 전시와 시식·시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특산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가입자 수가 3만명을 넘어선 ‘전북사랑도민증’ 홍보도 함께 진행되며, 도내 152개소 합인 가맹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안내와 현장 발급 안내 서비스가 병행되고 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북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름 고향사랑기부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도내 주요 하계 축제와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남원의 김부자 등 전북 특산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만호 기자



지난 18일 순창군 일대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은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최영일 순창군수로부터 호우 피해 설명을 듣고 있다.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도, 순창·남원 등 찾아 현장점검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 열기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복구 대응을 위해 순창군과 남원시 일대 피해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고, 도민 안전과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지난 18일 순창군 풍산면과 순창읍 일대를 찾아 축산농가 침수 현장과 산사태 취약지, 침수 우려 도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육계 농가와 축산물 가설공사 구간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풍산면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 대피장소의 사전 점검도 병행했다.

같은 날, 김중훈 경제부지사는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원을 찾아 농업분야 피해 현황을 직접 살폈다. 이 지역

은 최근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180여동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20년에도 섬진강 제방 붕괴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점검에는 도와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4명이 함께했으며, 귀석배수장 운영 상황과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익산, 남원, 임실, 순창, 고창 등 5개 시군에서 총 65.5ha의 농작물 피해와 함께 가축 6만2,000头的 피해가 접수됐다. 남원시에서는 벼, 시설작물, 기타 작물 등 총 51.6ha의 피해와 함께 오리 500수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귀석배수장 내 배수펌프 4대를 가동해 침수지역의 배수작업을

진행 중이며, 농경지 퇴수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집중호우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호우특보 발효에 따른 도내 피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실국장과 14개 시·군 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각 지역의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취약지 관리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기상상황 모니터링을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피해 발생여부 예찰과 응급복구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민 제안 먹거리 정책 ‘첫 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먹거리 속의기구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주도 먹거리 정책 실현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먹거리 속의기구’는 도민이 직접 지역 먹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발굴하고, 속의를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민 참여형 기구로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조제 제17조에 따라 처음 설치되었다.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참가자 공개모집을 통해 총 213명이 지원하였고, 지역과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최종 70명의 도민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이들은 앞으로 모둠별 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먹거리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직접 먹거리 정책 제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출범식은 이세우 전북먹거리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홍주 전북먹거리위원회 공동위원장(원광대 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속의기구 의장 선출, 위촉장 수여, 운영계획 공유, 모듬별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 중간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먹거리 돌봄 시스템 구축 △먹거리 정책 행정협의체 실질화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급식 공급 방안 등 도민이 평소

도, ‘먹거리 속의기구’ 출범

느끼던 먹거리 정책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정책비전을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먹거리는 복지·건강·농업 등 삶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의 영역”이라며, “도민이 주도하는 속의기구는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새로운 정책 참여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속의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전북 먹거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선8기 도정 과제 성공 마무리 다짐

도, 7월 소통의 날 행사… 직원들과 도정 추진방향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공영장에서 7월 소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민선 8기의 주요 도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전 직원의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도청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모범공무원증 수여식, 도정 운영 메시지, 그리고 장편 소설 ‘청년 녹두’의 저자인 이광재 작가의 초청 특강이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민선 8기가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지금, 그동안 도전과 도약의 과정 속에서 추진해 온 과제들을 이제는 성과로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주가 개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변화를 이끌고, 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 새만금 개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전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이광재 작가가 ‘동학농민혁명과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상반기 정부 모범공무원에 선정된 직원에게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상임위, 올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기획행정위·경산건위·농복합위·교육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로 지난 18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반기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목표 달성과 보완점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도 건설교통국의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과 책

심과제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도정 추진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옴융합산업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기후 변화 대응,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역 특화작물 연구 및 조직 운영 내실화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갔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형식)는 전북교육청 각 부서 중 행정국 및 감사관,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만호 기자